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신경원	소속(학부/과)	산업경영공학전공
파견 학기	19년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단순히 영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가 교환학생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독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에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국제교류원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파견교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메일 오시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항공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세스 항공을 통해서 구입을 하였고, 편도로 구매를 했는데 약 100만 원을 소비하였습니다. 키세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이 최대 40KG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하일브론 대학교로 오는 교환학생들과 International office 직원분들과 다 같이 처리하러 갑니다. International office 직원분들이 시청가기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해주시는데 그에 맞게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슈페어콘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슈페어 콘도는 은행 계좌 개설후에 4320유로를 계좌에 입금하시고 슈페어콘도를 하시고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각 학과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교직원 분들과 버디랑 함께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점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신청은 파견교에서 기숙사에 거주할건지 메일이 오는데 거주 하신다고 한다면 그 후에 합격했다고 따로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간안에 돈을 입금 하시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독일 바덴 뷚템베르크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는 1시간 걸립니다. 날씨는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소나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장마가 아닌 이상 가랑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german as foreign language intensiv(5sects) => 학기초 3주간 독일어 기초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A1,A2를 들을 인원을 분리한 후 독일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은 주로 듣기,말하기,쓰기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듣기,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erman as foreign language 1 (A1.1)(8ects) => 일주일에 수업 한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독일어 수업입니다. 시험은 딱 1번(중간고사 없이 바로 기말고사) 있습니다. 시험은 독일어 듣는 A1,A1.1,A2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컴퓨터로 시험을 칩니다. 또한, E러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인강을 이수하시고 과제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I (for incoming students), B1(2.5ects) => 비즈니스 잉글리쉬입니다. 주로 비즈니스영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과제로는 각자 자기의 나라의 기업 또는 유명한 비즈니스 사람에 대하여 10분간 프리젠테이션 있습니다.

Introduction to Economics(5ects) => 경제에 관한 수업입니다. 과제는 없었고, 전반적인 경제 수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수업하였고 출석점수는 따로 없었습니다.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있어서 시험 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막스플랑크 27에서 거주하였고, 월세는 297유로 보증금 450유로입니다.

막스플랑크 27 같은 경우에는 1인실,2인실만 존재하고 2인실이더라도 개인 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방안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안에는 침대, 책상, 의자, 라디에이터, 옷장, 책장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월세, 보험비를 제외하면 약300 유로가 남으실꺼고 충분히 한달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인텐시브 코스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매주 주말마다 근교도시로 교환학생 인원들끼리 당일치기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는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슈베비스 할을 방문 하였습니다. 도착하시고 처음에는 영어가이드 분들과 다니고, 그 후에는 개별로 행동하다가 다 같이 하일브론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참고로 슈투트가르트는 벤츠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투어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International office에서 메일을 보내는데 확인하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뉘른베르크를 다녀왔는데 개별로 가는 것보다 싸게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로는 멘자가 있습니다. 멘자는 저희 학교로 치면 북카페와 학생식당이 합쳐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멘자 식당은 보통 11시에서 2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일브론 대학교는 총 4개의 캠퍼스가 존재하는데 보통 손하임 캠퍼스와 빌동스 캠퍼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빌동스 캠퍼스는 이번에 새로 생긴 캠퍼스로 보통 경영학부 수업과 교양수업이 여기서 듣게 되고, 손하임 캠퍼스는 기계학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각 캠퍼스에는 컴퓨터실과 인쇄실이 같이 존재하는데 컴퓨터실에서는 보통 파이썬과 같은 언어로 처리해야하는 프로그래밍을 쓰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복사처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사는 저희학교 복사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당 40유로가 자동적으로 지원되어 있으므로 충전하지 말고 있는 돈 쓰시면 되는데 충분히 남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https://www.hs-heilbronn.de/sportangebot-wochenprogramm>로 접속하셔서 원하는 동아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 풋살장에서 5:5 또는 6:6으로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저는 유럽을 와서 인종차별은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이곳으로 파견오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영어공부를 하시고 독일어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1언어가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영어 향상을 생각하고 오신 분이라면 솔직히 캐나다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시청 직원마다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시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셨지만 울산대 교환학생분을 담당하시던 직원분은 독일어로만 대화하시거나 그냥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입주하시게 된 후 먼저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학기를 마치고 난 후에 방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를 빠빠하게 하므로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인텐시브 코스를 듣게 되신다면 다른나라에서 온 교환학생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나중에 같이 밥을 먹거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도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으므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빨래 같은 경우에는 맥스플랑크 31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해야하는데 멘자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하는데 금액은 1.7유로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메스터 티켓은 학기초에 발급하러 가는데 총 79유로 정도 했던거 같습니다. 이 티켓으로 지정된 구역까지는 버스,트램을 무료로 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지 하지 않으신 채로 타실 경우에 불시 검문에 걸리시면 50유로 정도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기계학과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학기중순에 아우디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는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BU 학생도 따로 메일을 보내시면 같이 공장을 갈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다양한 발음의 영어를 듣게 되어서 듣기도 자연스럽게 향상된거 같습니다. 저로서는 6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로 오시게 되는 파견 학생분들은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